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김 민 지

국문 초록

최근 기록 관리 분야에서는 기록의 수집과 보관을 넘어 그간 쌓여온 기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자 일일이 기록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기록 정보를 검색하고 실물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의 소장 기록을 하나의 검색지점(one point access)에서 찾아보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은 기관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기록 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연계에 대한 요구 증가는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기관의 소장 유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문화유산의 경우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되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산되었으나 주제나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 미술관, 단원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거북선, 귀선도, 난중일기는 모두 '임진왜란'이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 정보를 연계하고자하는 시도는 자연스럽다.

문화유산 정보의 일종이며 동시에 미술 기록 정보 범주에 속하는 미술 레지던시의 기록 정보 역시 정보 간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현대 미술 작가들은 작업실이자,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 미술계의 등용문 역

할을 하는 미술 레지던시를 이동하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들의 기관 간 유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기관 기록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은 현대 미술사를 연구하거나 작가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자하는 미술계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레지던시 간 기록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면 작가가 어떤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활동했으며, 그 곳에서 제작한 작품과 이에 관련된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미술 레지던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기록 정보 연계를 위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미술 레지던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기록에 관련된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레지던시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술계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미술 레지던시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는 가운데, 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지던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록 정보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주요어 : 기록, 아카이브, 미술 레지던시, 미술 기록, 미술 레지던시 기록, 기록 정보 연계, 데이터 모델

학번 : 2015-20112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미술레지던시의 이해 8

제1절 미술 레지던시의 개념 8

제2절 국내 미술 레지던시의 역사 및 운영 사례 11

제3장 미술 레지던시 기록 14

제1절 미술 레지던시 기록의 개념 및 유형 14

1. 미술관 기록 15
2. 미술 레지던시 기록 18

제2절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정보의 구성 22

1. 기록물에 대한 정보 25
2. 기관에 대한 정보 27
3. 사람(행위주체)에 대한 정보 31
4.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 33

제4장 레지던시 기록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35

제1절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참고 모델 36

1. 더블린 코어 (Dubline Core) 36
2. FOAF 모델 39
3. 유로피아나 EDM 모델 41

제2절 데이터 모델 설계 42

1. 모델 주요 개체 관계 설정 42
2. 확장된 모델 46

1) 레지던시 정보 영역..... 46
2) 사람 정보 영역..... 51
3) 행사 정보 영역..... 56
4) 기록물 정보 영역..... 58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7

Abstract..... 70

표 목 차

<표 1> Res Artis의 레지던시 정의 9
<표 2> 국내 레지던시 운영 프로그램 10
<표 3> SAA 박물관 아카이브 기록물 유형 구분 16
<표 4> 미술관 기능 분류에 따른 기록물 유형 17
<표 5> 레지던시 업무 기능 분류 20
<표 6> 레지던시 업무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 21
<표 7> ISO 23081 메타데이터 유형 23
<표 8>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 26
<표 9> Res Artis의 기관 검색 메타데이터 28
<표 10> Res Artis 검색 결과 메타데이터 29
<표 11>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31
<표 12>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의 랭사(활동)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33
<표 13> DC모델 메타데이터 속성 36
<표 14> 미술관 기록 기술 요소와 더블린 코어 데이터 모델 속성 비교 38
<표 15> FOAF 참고 개체 및 속성 39
<표 16> res 모델 핵심 개체(entity) 요소 45
<표 17> [레지던시]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47
<표 18>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50
<표 19> [작가]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53
<표 20> [행사]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57
<표 21> [기록물]개체 정보 설명을 위한 속성 61

그 림 목 차

<그림 1> 레지던시 기록 정보의 구성..... 25
<그림 2> res모델 핵심 개체 관계 모형..... 43
<그림 3> res모델 핵심 개체를 중심으로 확장된 모델..... 49
<그림 4> [레지던시]와 [프로그램], [작가], [행사] 개체의 관계 모형..... 50
<그림 5> 레지던시 사람 정보 영역 개체의 관계 모형..... 52
<그림 6> 기록물 개체의 구성 및 관계..... 59
<그림 7> 디지털 보기 자료..... 60

제1장 서론

최근 기록 관리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쌓여 보관되어온 기록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카이브가 처음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기록을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보관할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일정 이상의 기록이 수집된 이후에는 보관된 기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 본래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소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직접 소장 기관을 방문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전시나 카탈로그를 통해 기록을 접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자 일일이 기록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기록 정보를 검색하고 실물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의 소장 기록 정보를 하나의 검색지점(one point access)에서 찾아보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은 기관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기록 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연계에 대한 요구 증가는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기관의 소장 유산 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산의 경우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되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산되었으나 주제나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원 김홍도의 회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 미술관, 단원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영정[1)]

과 거북선, 귀선도[2], 난중일기는 모두 '임진왜란'이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연스럽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다양한 소장 기관의 정보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의 '유로피아나(Europeana)프로젝트'가 있다.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EU소속 유럽 국가들의 문화유산 정보를 한 데 모은 디지털 도서관 혹은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기록관·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3,000개가 넘는 문화유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완성과 정보력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지향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EDM(Europeana Data Model)'이라고 하는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3,000만 건 이상의 문화유산 정보를 구조화 하고 연결(link)하는 데 성공하였다. 연결된 정보들은 현재 유로피아나 포털 사이트[3]에서 검색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로피아나는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유럽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의 전달과 확산을 꾀하며, 연계된 정보의 활용을 통한 2차·3차적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유로피아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비슷한 프로젝트로, 국내의 미술관(Gallery)·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문화유산 정보를 연결하고 이것을 오픈 데이터(open data)로 발행하는 'GLAM 프로젝트'가 진행된바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

---

1)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장우성, 김은호, 정형모, 이상범 등 다수의 화백들에 의해 그려졌다.
2) 거북선(귀선,龜船)을 묘사한 그림,
3) http://www.europeana.eu/portal/en (최종 접속일 2017.1.30.)

해 ‘문화융합 온톨로지’라는 이름의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었으며 현재 연결된 문화유산 정보들은 ‘스마트 글램 코리아(Smart GLAM Korea)’ 온라인 사이트[4]에서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GLAM 프로젝트는 유로피아나에 비해 단기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 등에서 아쉬운 점이 많으나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유산 정보의 일종이며 동시에 미술 기록 정보 범주에 속하는 미술 레지던시의 기록 정보 역시 정보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현대 미술 작가들은 작업실이자,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5], 미술계의 등용문 역할[6]을 하는 미술 레지던시를 이동하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들의 기관 간 유동이 빈번한 상황에서[7] 기관 기록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은 현대 미술사를 연구하거나 작가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자하는 미술계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컨대 창동 레지던시에 입주했던 작가 김씨가 이후 난지 창작스튜디오, 경기 창작센터 등을 이어 입주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작가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는 미술 비평가는 작가의 레지던시에서의 활동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레지던시 간 기록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면 작가가 어떤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활동했으며, 그 곳에서 제작한 작품과 이에 관련된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미술 레지던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기록 정보 연계를 위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넓게 시각예술 분야나, 문화유산

---

4) http://glam.culture.go.kr (최종 접속일 2017.1.30.)
5) 박혜강(편), 「기획 특집: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3) :대안공간-창작공간의 딜레마」, 『묘책』, 제3호, 예술공간 돈키호테, 2013, 1-2쪽.
6) 류한승, 「그들은 왜 레지던스에 열광하는가?」, 『플랫폼』, 제12호, 2008, 62-65쪽.
7) 박정원 외 5인, 「이동의 거점, 레지던시가 말하다: 국내 레지던시 관계자 대담」, 『미술세계』, 제 351호, 2014, 92-99쪽.

영역에서는 정보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어, 예를 들어 조윤희(2003)[8]는 문화 자원의 통합을 위하여 기존 메타데이터 포맷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시도하였고, 임태원(2014)[9]은 유럽의 유로피아나(Europeana)사례[10]를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기관(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데이터 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술 레지던시와 관련하여 정보 연계와 통합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게다가 미술 레지던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기록에 관련된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연구들은 대부분 레지던시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11]에 치우쳐 있으며, 레지던시 기록만을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술계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미술 레지던시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는 가운데, 기록

---

8) 조윤희,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3.

9) 임태원, 『디지털 문화유산자원 통합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연구: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DM)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10) 문화유산 영역의 정보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유럽 연합의 유로피아나 프로젝트(Europeana Project)가 대표적이다. 유로피아나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문화유산 정보를 한 데 모으고 이를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다. 현재 기록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3,000개가 넘는 문화유산 기관들이 참여하여 3,000만 건 이상의 정보들이 연결되어 제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로피아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europeana.eu”를 통해 문화유산 정보 검색 서비스와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유럽 전역에 보관 중인 유산 정보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유로피아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식의 전달과 문화 정보 활용을 통한 2·3차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양건열 외 5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김연진 외 4인,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이명옥,『한국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발전 모델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황진수 외,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연구과제』,제9호, 2008; 신정이,『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안정은,『창의적 예술 공간으로서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미술관 박물관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지던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록 정보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실제 기관 인터뷰를 통해 레지던시 담당자들에게 기관 간 정보 연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지던시 기관 간 기록 정보가 상호 연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 레지던시별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데이터 모델(data model)'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레지던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기관 간 협력의 문제는 차후의 논의로 남겨 두고,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관 간 공유 가능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 제시하고자한다. 데이터 모델은 특정 영역의 정보에 대한 전체 구조와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한다. 공통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관의 기록정보는 향후 기관들 간의 정보 연결(link)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레지던시 기록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미술 레지던시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미술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 레지던시 기록을 다룬 선행 연구가 없는 관계로, 미술 기록의 일부이면서 기관 기록의 성격을 공유하는 미술관 기록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미술 레지던시 기록의 구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 분석의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실제 레지던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조사한 기록물의 유형과 실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논문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레지던시에서의 기록관리 현황과 이후의 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기록 관리에 대한 기관의 인식을 엿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레지던시 간 기록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하였다.

셋째, 데이터 모델링 방법을 통해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모델은 레지던시 기록 정보를 표현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데이터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와 레지던시 기관 홈페이지들을 분석하여 메타데이터 기술에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하였다.[12] 조사 분석을 통해 추출된 레지던시 기관을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로는 설립연도, 입주기간, 지원분야, 기관유형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서지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로부터 본 연구에 재사용 가능한 개체와 속성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모델에 연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시맨틱웹 분야의 표준 데이터모델링을 위한 언어로 제안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로 변환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모델로 통합하였다. 참고한 데이터모델은 네임스페이스(namespace) 형태로 출판되어 RDF로 구현된 외부의 데이터모델과 연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12)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모델의 차이는 분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용어 차이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지나 기록 관리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자료에 대한 '기술(description)요소'가 1990년대 중반 전산화의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 '메타데이터(metadata)'이며, 반면 컴퓨터 공학에서 기록보다 '정보(information)'와 '데이터(data)'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용도로 발전한 것이 '데이터 모델(data model)'이기 때문이다. 결국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모델 모두 '기록'과 '정보'를 잘 관리하기 위한 논리적인 뼈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기록'과 '정보'와 '데이터' 간의 차이가 모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에서 제안하는 레지던시 데이터모델의 핵심개체와 관계모형은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모델링 도구인 프로테제(protégé)로 설계하였다. 프로테제로 설계한 데이터모델은 RDF로 손쉽게 편집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참고 모델과 연결하여 통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술 레지던시를 이해하기 위해 미술 레지던시의 개념과 국내 미술 레지던시의 역사 및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술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술 레지던시 기록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과 '기록정보'의 개념을 분리하였는데, 기록과는 다른 레지던시의 기록정보는 무엇인지, 어떤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분석하며, 분석 내용은 이후 데이터모델 설계 시에 반영 된다. 또한 각 정보 유형들을 설명하기 위한 관련 메타데이터와 기술요소들을 살펴본 후 데이터 모델 설계에 참고할 항목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앞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추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 후 제5장 결론에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 미술 레지던시의 이해

제1절 미술 레지던시의 개념

레지던시(Artist-in-Residency)는 '작가들이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이자[13],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14]을 의미한다. 이 중 시각예술이나 조형예술 등 미술 분야 작가를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을 '미술 레지던시'라 부른다. 국가별로 레지던시에 대한 명칭과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국내 일부와 대만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지내는 '마을'의 개념으로 '창작촌, 예술촌(藝術村, Artist Village)이라 부르기도 하고, 작가 스튜디오의 개념으로 '창작 스튜디오', '창작 공간'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 'Artist-in-Residency', 'Artist Residency' 혹은 'Artist Community', 'Artist Colony' 라고 부른다. 하지만 다양한 명칭을 불문하고 최근 몇 년간은 창작 공간 제공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레지던시(Artist-in-Residency)'의 개념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국제 네트워크 기구인 'Res Artis'에서는 레지던시를 표방하고 있는 기관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레지던시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3) 김연진 외 4인,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IV쪽.

14) 양건열 외 5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2쪽.

<표 1> Res Artis의 레지던시 정의[15]

· 체계적이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 자원을 제공한다.
·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장소에 거주하는 행위'의 특성을 갖는다.
· 실험과 교류·대화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지역(local)과 세계(global)를 연결한다.
· 예술 생태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다른 예술분야는 물론 비예술 분야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
· 문화 간 이해 강화를 돕는다.
· 예술가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가의 글로벌 이동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 문화 정책 및 문화 외교의 중요한 공헌자로 역할 한다.

국제적인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지던시의 범주 아래 일부 국내 연구에서 레지던시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6]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 별 미션과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운영·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요 레지던시가 창작 공간만을 지원하는 과거의 수동적 모델에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모델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레지던시가 입주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예술가 창작활

15) Res Artis, 2016.12, <http://www.resartis.org/en/residencies/about_residencies>, (인용 2016.11.10)

16) 기능별 목적에 따라 '작업실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창작스튜디오', '국제문화교류시설로서의 창작스튜디오로 구분하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작중심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교류협력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중심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양건열 외, 2004, 14-17쪽; 강현덕, 『예술가의 레지던시 참여가 창조적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연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12-16쪽.

동 지원 프로그램',‘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지역연계 프로그램',‘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등이 있다.

<표 2> 국내 레지던시 운영 프로그램[17)]

프로그램 유형	세부 운영 프로그램 예시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창작지원금 제공 프로그램, 전시회(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등), 기획자와의 만남 프로그램(비평 워크샵, 오픈스튜디오 등), 예술가 교육 세미나 등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국내·외(상호)작가 교환 프로그램, 초청 프로그램, 예술가 투어, 장학금 지원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 지역축제, 주변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 및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시설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3년 보고에 따르면[18)]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레지던시는 약 120여 개이며, 이 중에는 정부 주도 설립, 지방지자체 주도 설립, 재·사단법인 주도 설립, 민간주도 설립의 레지던시가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시각예술 뿐 아니라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예술 이외의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곳은 아직까지 국내에 많지 않다. 해당 조사에서는 시각예술 분야를 미술, 조형 및 설치, 사진, 공예, 디자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분야를 수용하고 있는 레지던시를 ‘시각예술 레지던시’ 보다는 ‘미술 레지던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양건열 외 5인, 앞의 글, 2004, 34-40쪽; 김연진 외 4인, 앞의 글, 2013, 23쪽 참조 재구성.
18) 김연진 외 4인, 앞의 글, 2013, 42-48쪽

제2절 국내 미술 레지던시의 역사 및 운영 사례

국내에 미술 레지던시가 도입되어 운영된 역사는 20년 정도로 길지 않다. 80년대에 작가들의 주도나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 창작촌'이 산발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작업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레지던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1995년 4명의 작가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충북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의 회서분교를 창작공간으로 사용했던 '마동 창작마을'을 최초의 미술 창작스튜디오의 사례로 보는 견해가 많다.[19] 이후 1997년부터는 정부의 주도(특히 한국문화예술진흥원)로 폐교를 활용한 미술 창작스튜디오가 곳곳에 설립되기 시작했다.[20] 하지만 폐교 활용 창작스튜디오는 지원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예술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운영 몇 년 이후 예산 부족·보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부터 정부·지자체 주도로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등장했는데,[21]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레지던시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1997년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

---

19) 양건열 외 5인, 위의 글, 2004, 8쪽. 마동창작마을은 현재 미술,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레지던시'로 분류하기 어렵게 되었다.

20)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지원 사례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29개소에 달했다. 양건열 외 5인, 위의 글, 2004, 8쪽.

21) 외국에서 유휴 시설을 문화 예술 시설로 개조하여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미술 시장이 위축되고, 기초 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열악해진 때였다. 미술계 내외로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예술가들과 미술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이었다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성된 것이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안공간은 2000년대 초·중반의 현대미술의 핵심 거점이었다. 그러나 대안 공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최근에는 레지던시가 일종의 대안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된 중외공원 내 팔각정을 개조하여 '팔각정 스튜디오'를 개관하였고, (사)현대미술관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2002년 6월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농협 창고 자리에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를, 2004년 4월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차례로 개관하였다.[22] [23]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6년에 난지도의 침전물 정화시설을 개조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난지 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하였고, 2008년 대전 시립미술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소 건물을 활용하여 '대전 창작센터'를 설립하였다. 인천광역시 역시 2008년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인천 아트플랫폼'을 조성하였고, 경기도는 선감도에 위치한 경기도립 직업 전문학교를 2009년에 '경기 창작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곳곳에 '서울시 창작 공간'을 조성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미술 레지던시로 '금천 예술공장'과 '문래 예술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닌 재·사단법인 주도로 설립된 사례로는 1998년 ㈜레데데코 쌈지가 조성한 대안공간 '쌈지스페이스'의 '쌈지 레지던시가' 대표적이다.[24] 이후 2000년 9월에는 재단법인 대유문화재단이 경기도 광주의 영은 미술관 내에 '영은 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하였으며, 2005년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경기도 이천에 금호미술관 '금호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앞서 살펴본 레지던시들은 주로 다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인

---

22) 창동 및 고양 스튜디오는 2004년까지 (사)현대미술사관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 주체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김연진 외 4인, 앞의 글, 2013, 33쪽.

23) 고양·창동 창작스튜디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2015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24) 쌈지 레지던시 사례의 경우 비록 기업 운영의 문제로 2008년 폐관 하였으나, 운영 기간 동안 기업의 후원이 지속 되었고, 레지던시 운영 주체가 대안공간인 '쌈지 스페이스'였다는 특수성 덕분에 정부·지자체 주도의 레지던시와 비해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현대미술의 장으로 역할 할 수 있었다.

반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발성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광주 대인시장으로 무대로 하고 있는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나, 2014년부터 시작된 디엠지(DMZ)프로젝트 ‘양지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프로젝트 레지던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이곳에 대한 기록과 정보가 쉽게 소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의 생산 시점부터 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3장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제1절 미술 레지던시 기록의 개념 및 유형

미술 레지던시 기록은 큰 범주에서 '미술 기록'에 속한다.[25] 미술 기록은 '개인 및 기관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모든 종류의 기록 중 영구적으로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이다.[26] 미술 기록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창작자나 창작 집단의 미술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두 번째는 미술 관련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이다.[27] 미술 레지던시 기록은 미술 관련 기관인 미술 레지던시의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의 기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미술관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와 미술 분야의 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 기록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나, 미술 레지던시 기록을 따로 논의한 연구는 없어 레지던시 기록이 무엇인지 정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관 생산 기록이라는 공통된 유형에 속하는 미술관 기록 연구를 토대로 미술 레지던시 기록의

---

25) 공공영역의 기록 관리를 토대로 정립된 기록학 일반이론을 미술 기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정혜린, 김익한,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 20호, 2009, 156쪽. 따라서 기록학 일반 이론 보다는 미술 기록을 따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레지던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26) 미술 기록의 범주에 '미술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분된 주장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기록에서 미술 작품을 제외한다. 왜냐하면 미술 기록은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특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27) 정혜린, 김익한의 연구에서는 미술 기록의 유형을 '창작자 개인이나 창작집단의 창작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미술 관련 조직의 활동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미술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축소 분류하였다.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은 개인이나 기관 두 주체에 의해 생산된 기록에 모두 속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혜린, 김익한, 2009, 159쪽.

내용을 살펴보았다. 미술관 기록 연구에서 미술관 기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미술 레지던시 기록이 미술관 기록과 비교하여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레지던시 기록만의 특징과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레지던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기관으로는 국내 주요 레지던시로 평가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창작스튜디오, 경기도 경기창작센터를 선정하였다.

1. 미술관 기록

국내 연구에서 미술관 기록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 주로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하 SAA)'의 박물관 아카이브 부서(Museum Archives Section)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28] SAA에서는 박물관 아카이브를 '행정적, 법적, 재정적, 연구적 가치가 있는 비현용 기록'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언급한 미술 기록의 정의와 SAA의 정의를 토대로 하면 미술관 기록은'미술관의 운영 과정과 결과로 생산·축적된 기록 중 행정적, 법적, 재정적, 연구적 가치가 있는 기록[29]'이라고 할 수 있다.

---

28) 미술관이 엄밀히 말해서는 '미술 박물관'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

29) 미술관의 현용·준현용 기록 : 공공기록물이나 다른 분야의 기록물 관리와 마찬 가지로 미술관 기관 역시 현용 기록물은 생산부서에서, 준현용 기록물은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기록 관리자(records manager)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지은, 김지현, 2015, 61쪽. 하지만 국내 미술관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사실상 국내 미술관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현용·준현용기록을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 레코드 매니저(record manageer)를 배치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미술관의 비현용 기록 (아카이브) :국·공립 미술관의 비현용 기록물의 경우 기관 내 아카이브에서 전문 아키비스트들이 관리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그 밖의 사립 미술관 등에서는 대부분 비현용 기록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SAA에서는 박물관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기록을 <표3>과 같이 세 가지‘기관 기록’과‘소장품 관련 기록’,‘수집기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3> SAA 박물관 아카이브 기록물 유형 구분[30]

구분	내용
기관 기록	기관의 관리 및 행정업무로 생산된 각종 기록으로 회의록, 회계·재무 기록, 보고서, 부서 파일, 기관 건축 관련 기록, 기록 사진,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기록, 기관 발행물 등이 포함된다.
소장품 관련 기록	학예부서나 소장품 등록 관리 부서에서 생산한 소장품 관련 기록물로 소장품 파일, 소장품 전시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된다.
수집 기록 (메뉴스크립트)	기관의 미션이나 수집 정책 등에 따라 기관의 소장품과 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획득된 개인 혹은 타 기관 기록이 포함된다.

반면 미술관 아카이브의 기술요소를 제안했던 이지은, 김지현(2015)의 연구에서는 SAA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술관 기록의 유형을 ‘기관 기록’과 ‘메뉴스크립트’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31] 먼저‘기관 기록’에는 미술관의 주요 업무인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이 포함된다. 기관 기록은‘생산 부서’가 아닌 미술관의‘기능’으로 분류·정리 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록 관리의 일반 원칙인‘기능적 출처주의 원칙’과‘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르기 위함이다.[32]

30) “Museum Archives Guideline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3 :http://www2.archivists.org/groups/museum-archives-section/museum-archives-guidelines [cited 2016.11.15]

31) 이지은, 김지현, 앞의 글, 2015, 59-63쪽.

업무 기능은 크게 학예기능과 행정기능으로 구분되며.[33] 학예기능 내에는 소장 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교육기획, 학술연구 및 출판 기능 등이 포함된다. 기능 분류에 따른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 4> 미술관 기능 분류에 따른 기록물 유형[34]

기능	세부 기능	기록물 종류
미술관 고유 기능 (학예기능)	작품 수집	작품 수집 중·장기 계획 서류, 작품 구입·기증 관련 각종 문서, 회의록, 구술 기록, 사진 등
	작품 관리	소장작품 부문별 관리대장, 반입·반출·대여 이력 문서, 저작권 관련 문서, 소장품 슬라이드, 설치 매뉴얼 등
	작품 보존	작품보존 상태 점검 문서, 복원 시 생성된 관리 문서, 작가 자료, 복원 전·후 사진, 보존 도구(박물류) 등
	전시	작가 연구 자료, 전시 디자인·조성 관련 문서, 전시 인쇄물, 전시 전경 사진, 전시 영상 등
	교육	일반 교육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관련 각종 문서,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사진, 영상 자료 등

32) 미술관 기관기록을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정리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미술관 내 부서의 명칭과 각 부서가 맡는 업무는 가변적이나, 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 관리의 일반 원칙인 '기능적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상통한다. 이지현, 김지현, 앞의 글, 2015, 60쪽; 박상애,「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박물관교육연구』,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4, 제11권, 17쪽.
'기능적 출처 주의'는 기록 분류 체계를 기록 생산자나 생산 조직이 아닌 이들의 '기능'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을 정리할 때 기록 생산자가 구축한 기록의 조직 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기록학회,『기록학용어사전』,역사비평사, 2008.

33) 해당 논문은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Wythe 논문에서 참고하였다. Wythe, Deborah, The Museum Context, Wythe, Deborah eds, Museum Archives: an Introduction,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 이지은, 김지현, 앞의 글, 2015, 60쪽, 재인용

	연구·출판	학술행사 관련 각종 자료, 출판 인쇄물, 작가 자료, 사진, 영상 자료 등
	홍보	각종 홍보 자료, 신문기사, 사진, 영상, 간행물 등
행정 기능	행정 업무	인사 기록, 회계·재정 기록, 계약서, 연례보고서, 회의록, 건축 기록, 시설(공사) 기록 등

미술관에서는 기관 기록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수집기록(메뉴스크립트)이 아카이브 컬렉션의 주를 이루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록을 기증받고 수집하는'수집형 보존소'의 기능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35]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은 미술관 고유 기능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기록물과 기관의 수집 정책에 의해 수집된 기록물로 구성 된다. 수집 대상은 작가, 연구자, 비평가, 수집가 등의 개인 기록과 미술관, 연구소 등 조직이나 기관의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기록물의 세부 종류는 서신, 일기, 스케치, 습작, 미술도구(박물류), 전시 인쇄물, 작가 연구자료, 구술기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미술 레지던시 기록

미술 레지던시 기록은 앞서 언급 하였듯이 넓은 범주에서 미술 기록이며, 그 중에서도 미술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미술관 기록과 비교·대조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미술관 기록의 유형 분류를 토대로 미술 레지던시 기록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34) 이지은, 김지현, 앞의 글, 2015, 61쪽 참고 재구성.
35) 이지은, 김지현, 앞의 글, 2015.

먼저 레지던시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미술관 기록과 마찬가지로‘기관 기록’과‘메뉴스크립트로’분류되며,[36] 이 중 기관 기록은 레지던시의 업무 기능을 토대로 분류할 수 있다. 미술관의 업무 기능이‘미술관 고유기능’과 ‘행정 기능’으로 구분되었듯이, 레지던시의 업무 기능은‘레지던시 고유 기능’과 ‘행정 기능’으로 구분 가능하다. 행정 기능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에는 인사 기록, 회계 기록, 재정 문서, 보고서, 회의록, 건축 도면, 시설(공사)기록 등이 있으며 이는 미술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와 비슷하다.

반면 미술 레지던시의 고유 업무 기능은 미술관의 업무와 확연히 구분된다. 미술관의 핵심 기능이‘작품의 수집·관리·보존·연구·전시’인 반면 레지던시는 작품 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37] 미술 레지던시의 주 기능이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레지던시의 고유 업무 기능은‘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으로‘입주 프로그램’과‘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는‘입주 작가 관리’와 ‘입주 프로그램 기획’업무 등이 있으며,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는 ‘전시 및 각종 행사 기획·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출판·홍보’운영 등이 있다.[38] 이상의 레지던시 업무 기능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6) 대부분의 레지던시에서는 메뉴스크립트 구성을 위한 수집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업무 과정 중 작가들로부터 수집한 외부 기록의 양이 상당하므로, 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7) 레지던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따로 작품을 구매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입주 작가가 입주 기간 동안 생산한 작품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퇴거 시 레지던시에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38) 이러한 업무 기능 분류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레지던시는 미술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세분화되기 어렵다. 업무의 큰 구분 없이 한두 명의 레지던시 직원에 의해 기능들이 한 번에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표 5> 레지던시 업무 기능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레지던시 고유 기능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기능)	입주 프로그램 운영	입주 작가 관리
		입주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시,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기획·운영
		출판·홍보
행정 기능	행정·시설 관리 등	

업무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입주 작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작가들의 입주 기록이 생산된다. 작가들은 장기·단기·교환 등의 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레지던시에 입주하는데, 이 때 입주를 위한 지원 자료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입주 지원서와 계획서, 이력서, 작품 사진과 비디오 영상을 포함한 작품 포트폴리오, 전시 인쇄물과 전시 전경 사진, 비평·평론 원고 등이 포함 된다. 입주 프로그램의 기획·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주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와 타 기관과의 교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각종 문서(기관 간 협약서나 서신)가 생산된다.

다음으로 전시·워크샵·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이 있으며, 여기에는 행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회의록, 행사 촬영 사진, 행사 촬영 영상, 축사·서문·비평 원고 등이 해당한다. 또한 출판과 홍보 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에는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과 같은 전시(행사) 인쇄물과 기념품, 보도자료, 기관 홍보 자료, 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표 6> 레지던시 업무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

업무 기능	세부 기능	기록물 유형
레지던시 고유 기능	입주 작가 관리	입주 지원서, 입주 계획서, 작가 이력서, 작품 포트폴리오(사진, 영상파일 포함), 이전 전시 인쇄물, 전시 전경 사진, 작가노트, 비평, 평론, 전시 서문 등의 원고, 입주기간 내 활동 기록, 외국인 입주 작가 입국 관련 자료 등
	입주 프로그램 기획·운영	입주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교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관 간 협약서, 계약서, 서신(이메일 포함) 등
	전시,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기획·운영	리서치 자료(작가 포함 각종 조사 자료), 계획서, 결과 보고서,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축사·서문·비평 등의 원고, 사진, 영상,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등
	출판·홍보	전시 인쇄물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릿, 초대장 등), 기념품, 기관 홍보 자료, 보도 자료, 간행물 등
행정 기능	행정·시설 관리	인사 기록, 회계 기록, 계약서, 재정 문서, 연례 보고서, 회의록, 건축 도면, 시설 (공사) 기록 등

위와 같이 유형 분류가 실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의 유형과 부합하는지 기관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관별 미비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39]

레지던시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 기록이 기록 구성의 주를 이루는 반면

39) 부록 1 : 레지던시 기관 기록물 유형 조사표 참조.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이 따로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많은 레지던시에서 기관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부족한 인력으로 기록 수집 작업을 따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레지던시 담당자 인터뷰 결과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수집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관 아카이브가 '수집형 보존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시에서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입주·출신 작가들의 기관 외부 활동 기록이나 타 기관의 기록은 레지던시의 기록 정보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던시 아카이브를 구축할 시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타 기관과의 기록 정보 연계 방법을 통해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절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정보의 구성

본 절에서는 다음 제4장에서 레지던시 기록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 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개념과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레지던시 전체의 기록 정보가 어떻게 구성 되어있는지, 정보를 설명하는 세부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데이터 모델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미술 레지던시 기록은 레지던시 활동의 증거이며 정보원이다. 기록을 통해 레지던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곳에 머물렀던 작가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레지던시 기록이 이러한 증거적·정보적 가치[40]를 갖기 위해서는 기록물 자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기록을 생산한 레지던시와 레지던시의 활동, 인물 등에 대한 맥락 정보를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레지던시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된 맥락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 비로소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41] 기록물 관리의 메타데이터 구성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ISO 23081 표준[42]에서도 기록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외에 행위주체나 업무활동, 기록관리 과정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7> ISO 23081 메타데이터 유형[43]

1. 기록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2. 업무활동이나 과정에 관한 메타데이터
3.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메타데이터
4. 사람(행위주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5. 정책이나 법규에 관한 메타데이터

40) 기록의 가치는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나뉘며, 증거적·정보적 가치는 2차적 가치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치 분류는 미국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제시되고, 쉘렌버그(T.Schellenberg)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기록의 1차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목적에 의하여 주로 생산한 당사자나 혹은 당사자와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에 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가치이다. 2차적 가치는 1차적 가치의 소멸 이후 제삼자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발현되는 가치로 역사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등으로 구분된다. 역사 증거적 가치는 기록이 후대에 전승되어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 증거로서 활용될 가치이며, 정보적 가치는 기록물의 정보가 다양한 이용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가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전자기록시대에는 이러한 1·2차적 가치의 경계와 단계적 차이가 무너지고, 결국 기록의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기록정보로서 활용되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41) 송민정, 『행정기관의 기록물 전거레코드 개발 방향』,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1쪽.

42) ISO 23081:2006.

43) ISO 23081:2006; KSXISO 23081-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제1부:원칙; 황진현,임진희,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기록학연구』, 제 33호, 2012, 173쪽; 손민정 위의 글, 20쪽 참고.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실체와 분리되어 손에 잡히지 않는‘정보’로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기록 정보’를 설정한 후 이것의 구성을 크게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맥락 정보’로 구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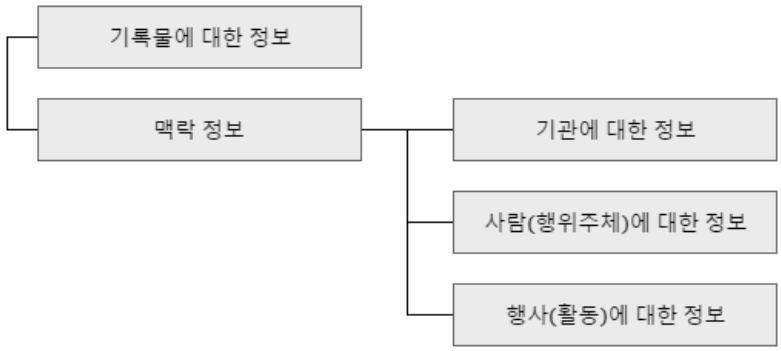
먼저‘기록물에 대한 정보’는 문자 그대로 기록물 자체에 관한 정보로‘기록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들이다. ‘기록물’은 물리적 실체로서 관리된다. 가령 종이 기록 등과 같은 실물 자료는 적절한 처리 과정 후 수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며, 전자·디지털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상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은 언제 생산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맥락 정보’는‘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분리되어 존재하며,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풍부해진다. 레지던시의 맥락 정보는‘레지던시 기관에 관한 정보’와‘사람(행위주체)에 대한 정보’,‘행사에 대한 정보’로 구분된다.

각각의 정보 영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가령 ‘레지던시에 대한 정보’의 경우 레지던시명은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 정보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 정보 영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기술요소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 이지은, 김지현(2015)이 제시한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술요소는 비록 레지던시 기록물에 대한 기술 요소가 아니지만, 확인한 바와 같이 두 기록 큰 범주에서‘미술 기록’에 속하며, 미술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 확인 결과 미술관 기술요소를 미술 레지던시 기록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 큰 무리는 없었으나, 전체 요소들 중 본 논문에서 구축하고자하는 데이터 모델의 성격에 부합하는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참고하였다. 두 번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레지던시 네트워크 기구인 'Res Artis'에서 기관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이어'사람(행위주체)에 대한 정보'와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 인물 정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참고하였다.

<그림 1> 레지던시 기록 정보의 구성



1. 기록물에 대한 정보

이지은, 김지현(2015)연구의 미술관 기록 기술 요소는 ISAD(G) 표준의 기술 영역인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 영역,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 영역, 기술통제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 되었으며, 기록물의 계층인 컬렉션, 시리즈, 아이템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요소를 따로 설정하였다. 이 중 가장 자세한 기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기술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8>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

기술 영역	기술 요소	기술 영역	기술 요소
식별 영역	참조코드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접근 조건
	제목		재생산 조건
	생산 연도		언어와 자체
	기술 계층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유형		매체 속성
	수량		디지털화
	수장고명과 위치		검색도구
	이미지	연관 자료 영역	관련 기술 단위/ 관련 정보원
배경 영역	생산자명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디지털 컬렉션
	기록관리 이력	주기 영역	주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출판 주기
	추가이관		전시 주기
	색인어		대여 주기
			보존 주기
		기술 통제 영역	기술 담당자
			규칙과 협약
			기술 일자
			기술 수정 근거와 사유

* 데이터 모델에 사용될 참고 요소는 파란색으로 표시

미술관 기록을 위한 기술요소는 기록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기록물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 통제영역

의 [기술 담당자], [기술 일자], [기술 수정 근거와 사유]의 경우 기관 내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때 누가 해당 기록물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기술 일자는 언제인지, 기술을 수정하였다면 그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데이터 모델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모델이므로 이와 같이 기관 간에 공유되기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제외하였다. 기관 내적으로 유용한 정보는 제외하되 기관 간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는 식별영역에서 [참조코드], [제목], [생산 연도], [기술 계층], [유형], [수량], [수장고명과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배경 영역에서는 [생산자명]을, 내용과 구조 영역에서는 [범위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접근과 이용 영역에서는 [검색도구]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선택하였으며, 연관자료 영역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디지털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이 중 [디지털화]와 [디지털 컬렉션]은 실물 기록물과는 다른 전자·디지털 형대로 생산·보관된 기록물로서 데이터 모델 설계시에 이러한 구분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2. 기관에 대한 정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기관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레지던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레지던시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는 Res Artis 사이트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참고하였다. Res Artis는 전 세계 70여 개국, 550개 이상의 레지던시 기관 및 조직,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레지던시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미술 레지던시 중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창작스튜디오, 경기 창작센터, 서울시 금천 예술공장이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44] Res Artis는 현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의 레지던시 정보

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레지던시가 운영 중이며,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레지던시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길 원할 경우 본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이 때 국가나 도시, 레지던시 유형, 스튜디오 크기 등의 기준에 따라 레지던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도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레지던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레지던시 검색 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Res Artis의 기관 검색 메타데이터

레지던시 검색(Search Residency)
국가(Country)
도시(City)
지원 분야(Suppotrt)
입주 기간(Duration of Residency)
기관 유형(Organization Type)
장소(Setting)
직원 사용 언어(Working language)
동반 가능한 것(Companions allowed)
스튜디오의 유형과 크기(Type and Size of Studio)
숙소사항(Accomodation)
휠체어 이용가능 여부(Wheelchair)

* 데이터 모델에 사용될 참고 요소는 파란색으로 표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소들 중 [국가]의 경우 국내 레지던시를 대

44) Res Artis, List of Residency, 2016.12, <http://www.resartis.org/>, 검색어 Korea South, 접속일 2016.12.10.

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지 않았다. 다만 [도시]의 경우 레지던시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요소로 참고하며, [지원분야], [입주기간], [기관유형], [장소] 역시 선택하였다. 반면 입주작가들이 레지던시를 지원할 시에만 필요한 정보들인 나머지 요소들은 선택에서 제외하였으나, 각 기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요소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 검색 결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Res Artis 검색 결과 메타데이터

레지던시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레지던시에 대한 기술 (Description of residency)
기관에 대한 간략한 기술 (Brief description of organization)	장소(Setting)
기관 설립년도 (Organization founded in)	스튜디오 수 (Number of studios)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기술 (Brief description of residency program)	스튜디오 유형 및 크기 (Type and size of stuios)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작년도 (Residency program since)	숙소 사항(Accomodation)
분야 (Disciplines and media)	직원 사용 언어 (Working languages)
레지던시 조건 (Residency conditions)	그 밖의 활동 (Other activities happening at the space)
입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ies)	
한 번에 입주하는 작가의 수 (Number of artists resident at one time)	

보조금 여부 (Grants available)
작가가 지불해야하는 금액 (Expenses paid by artist)
작가에게 기대되는 사항 (Expectations of the artist)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Expenses paid by the organization)
지원조건 및 방법 (Application who/how)
선발 과정 (Selection procedure)
작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요구 여부 (Presentation of artists'work)

* 데이터 모델에 사용될 참고 요소는 파란색으로 표시

검색 결과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중에서는 우선 레지던시 일반 정보인 [기관 설립년도]와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작년도]. [분야]를 선택하였다. [기관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기술]인 요소명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요소로 대체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주기간]과 [그 밖의 활동]은 기관에 대한 정보임과 동시에 입주작가들에 대한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이다. 해당 요소를 통해 작가의 레지던시 입주 기간과 참여한 활동(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 밖의 요소들은 앞서 레지던시 검색시에 사용되었던 메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주로 입주작가들이 레지던시를 지원할 시에만 필요한 정보들이므로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3. 사람(행위주체)에 대한 정보

사람(행위주체)은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각종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다. 여기에는 입주작가와 레지던시 직원이 해당될 수도 있고, 레지던시 외부의 사람들(미술 이론가나 일반인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 주체는 외부인보다는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들이다. 따라서 사람 중에서도'입주작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를 참고하고자, 실제 레지던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작가 정보 메타데이터를 검토하였다. 레지던시는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행위 주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는 제4장에서 FOAF모델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창동·고양 레지던시에서 입주작가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창동·고양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작가명	작가명
기수	기수
구분	
국적	
프로그램	
기관명	
기관 국가	

입주 기간	
작가 이력	
학력	학력
전시경력	프로젝트
개인전	개인전
그룹전	단체전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수상 및 기금지원
	레지던시
대표작품 이미지	대표작품 이미지

* 데이터 모델에 사용될 참고 요소는 파란색으로 표시

비교 결과 난지 창작스튜디오의 요소 수가 적은 것 외에는 두 기관에서 표현하고 있는 입주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기관의 요소들 모두 제외 없이 추출 가능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수] 요소는 양 기관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레지던시에서 기본적으로 입주 작가를 입주 기수를 기준으로 관리함을 반영한다. 또한 작가의 이력에서 [개인전], [단체전]의 전시 경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 때 반드시 두 종류의 전시가 구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 모두 이력에서 [레지던시] 경력이 따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통해 최근 작가들의 레지던시 경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창동·고양 레지던시의 첫 번째로 요소로 등장하는 [레지던시]의 경우 창동 레지던시와 고양 레지던시를 분류하기 위함이며, 결국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 작가 경력에 사용되는 [레지던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동·고양 레지던시에서 [국적]과 [기관 국가] 요소가 추가된 이유는 국제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작가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도 본격적으로 국제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된 바, 해당 요소가 데이터 모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

레지던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및 활동은 전시회가 주를 이루며, 그 밖에 워크샵이나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앞서'사람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 행사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레지던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시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의
랭사(활동)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창동·고양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전시제목	전시명
구분	전시시간
기간	전시기간
장소	전시장소
작가	참여작가
작품수	부문/작품수
주최/후원	
관람료	
전시소개	전시내용
연계행사	부대행사

* 데이터 모델에 사용될 참고 요소는 파란색으로 표시

사람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전시 정보 역시 두 기관에서 많은 요소들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에 대한 정보는 [제목]과 [기간], [장소], [참여작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전시소개]과 [전시내용] 은 [기술]이라는 요소로 대체 표현 가능하다. [연계행사]와 [부대행사] 요소를 통해 관련된 행사들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모델을 통해 객체와 속성으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제4장 레지던시 기록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건축가의 설계도에 비유될 수 있는 데이터 모델(data model)은 특정 영역의 정보에 대한 전체 구조와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Entity)와 개체들 간의 관계(Relationship), 속성(Attribute)을 정의하여 미술 레지던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뼈대 역할을 하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론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지금까지 많이 사용 된 '관계형 데이터 모델(relational data model)'은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어 고정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데이터 모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수정해야하는 단점을 수반한다. 이에 반해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독립적으로 설계 할 뿐 아니라 모델의 요소들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재활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으며, 모델 수정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와는 독립적으로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방법론에 의해 기존의 데이터 모델을 참고하여 필요한 요소는 재활용하고 부족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하였다. 요소 재활용을 위한 참고 모델은 더블린 코어(Dubline Core)모델[45]과, 유로피아나 FOAF(an acronym of Friend of a Friend)모델[46], EDM (Europeana Data Model) 모델[47]을 선정하였다. 더블린 코어 모델은 정보자원을 기술(description)

45)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DC Element Set, Version 1.1, 2012.06.14., <http://dublincore.org/documents/dcmi-terms/#elements-format>, [cited 2016.12.20.].

46) Dan Brickley and Libby Miller, 『FOAF Vocabulary Specification 0.99』 http://xmlns.com/foaf/spec/ [cited 2016.12.10.]

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레지던시 기록정보 유형 중 특히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속성들이 재활용될 수 있다. FOAF 모델은 기관인'레지던시에 대한 정보'와'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위하여 속성들의 재활용이 가능하며, EDM 모델은'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위해 소수의 개체와 속성이 활용될 수 있다.

제1절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참고 모델

1. 더블린 코어 (Dubline Core)

더블린 코어 모델(Dubline Core Model, 이하 DC모델)은 정보자원을 기술(description)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1995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더블린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제정된 이후 ISO 표준으로 공인되었다[48]. DC 모델은 기술하고자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다. 온라인상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물리적인 자원인 도서, 기록, 작품 등이 모두 DC 모델로 표현 가능하다. 모델의 총 15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제목, 생산자, 주제, 기술, 출판자, 기여자, 날짜, 유형, 형식, 식별자, 출처, 언어, 관계, 범위, 권한이 해당된다.

<표 13> DC모델 메타데이터 속성[50]

속성명(properties)	내용
제목(title)	자원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을 표현한다.

47) Europeana, 『Europeana Data Model primer』, 2013. ; Europeana, 『Definition of the Europeana Data Model』,v.5.2.7, 2016.; Europeana, 『Europeana Data Model Mapping Guidelines』,v.2.3, 2016.
48) ISO 15836 : 2009

생산자(creator)	자원을 생산하는데 주된 책임을 진 개체로 사람이나 조직 등이 포함된다.
주제(subject)	자원의 내용이 지닌 주제로 키워드나 중요한 구, 또는 분류 기호가 포함된다.
기술(description)	자원에 대한 설명
출판자(publisher)	자원을 발행하도록 책임을 진 개체로 사람과 단체, 조직, 서비스 등이 포함 된다.
기여자 (contributor)	자원을 만드는데 기여한 개체로 사람이나, 조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날짜(date)	자원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이벤트의 날짜로 일반적으로는 자원의 생산날짜와 이용된 날짜를 지칭한다. YYYY-MM-DD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유형(type)	자원의 유형, 장르로 더블린 코어의 유형 타입 모델인 DCMI Type[49]의 어휘 사용이 권고된다.
형식(format)	자원의 파일 포맷이나 물리적 매체 등을 표현한다.
식별자(identifier)	식별 시스템에 맞는 문자열이나 번호 등이 사용된다.
출처(source)	자원의 유래 자원을 표현한다.
언어(language)	자원에 사용된 언어를 표현하며, ISO 6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언어 태그를 사용한다. 예) 영어는 “en”나 “eng”, 한국어는 “kor”로 표시
관계(relation)	자원과 관련 있는 자원을 표현한다.
범위(coverage)	자원의 내용 범위로 공간이나 시대, 관할구명 등이 사용된다.
권한(rights)	자원에 관련된 권한 정보로 대체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기타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49) DC모델에서 설명하는 자원의 유형을 규정해 놓았으며, 컬렉션 (Collection), 데이터세트 (Dataset), 이벤트(Event), 이미지 (Image), 인터렉티브자원 (InteractvieResource), 움

더블린 코어 모델은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부합하는 요소들이 많다. 앞 장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를 통해 추출한 요소들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했다.

<표 14> 미술관 기록 기술 요소와 더블린 코어 데이터 모델 속성 비교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	더블린 코어 속성
일치하여 사용 가능한 요소	참조코드	식별자 (indentifier)
	제목	제목 (title)
	생산 연도	날짜 (date)
	유형	유형 (type)
	생산자명	생산자 (creator)
	범위와 내용	기술 (description)
	언어와 자체	언어 (lnaguage)
	재생산 조건	권한 (rights)
	접근 조건	
일치하지 않으나 사용되어야 하는 요소	기술 계층	형식 (format)
	수량	주제 (subject)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화	
	매체 속성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수장고명과 위치	

직이는이미지 (MovingImage), 물리적객체 (PhysicalObject), 서비스 (Service), 소프트웨어 (Software), 음성 (Sound), 스틸이미지 (StillImage), 글 (text)로 구성 된다.

50)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DC Element Set, Version 1.1, [cited 2012.06.14.]., <http://dublincore.org/documents/dcmi-terms/#elements-format>, [cited 2016.12.20.].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에서 추출한 요소와 부합하는 속성인 경우 바로 본 연구의 데이터 모델과 연결 가능하였다. 더블린 코어의 [식별자], [제목], [날짜], [유형], [생산자], [기술], [언어], [권한], [형식], [주제]는 각각 미술관 기록 기술 요소의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유형], [생산자명], [범위와 내용], [언어와 자체], [재생산 조건], [접근조건], [기술계층], [수량]과 부합한다. 그러나 더블린 코어와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인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화], [매체속성],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수장고명과 위치]등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 모델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설정해야 한다.

2. FOAF 모델

FOAF (친구의 친구, Friend of a friend의 약자) 모델은 사람의 활동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로, 2000년에 개발되었다. FOAF 모델을 통해서는 가령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거나, 한 인물이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의 사람들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FOAF모델은 개체 13개와 속성 62개로 구성되며, 본고에서는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지 않고, 본 모델과 연결된 요소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결된 요소를 정리하면 <표15>와 같다.

<표 15> FOAF 참고 개체 및 속성

개체 목록 (Entity)
행위 주체 (Agent)

사람 (Person)
기관/조직 (Organization)
그룹 (Group)
속성 목록 (Properties)
이름 (name)
구성원 (member)
홈페이지 주소 (hompage)
전화번호 (phone)

[행위주체]는 '사람에 대한 정보 영역'을 표현하는 핵심 개체로, [사람], [기관/조직], [그룹]을 하위 개체로 갖는다. FOAF모델에서 [행위주체]는 [사람]개체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판에서 추가된 개체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라고 할 수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특정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행위주체]로 표현할 수 있다. [기관/조직]개체는 '레지던시'를 표현할 수 있는 개체이다. 그러나 기관이나 조직에는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기록관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기관들이 레지던시 활동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레지던시를 [기관/조직]으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의 하위 개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나 기관, 그룹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속성들에서는 [이름]과 [구성원],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속성이 있다. [구성원]속성은 [사람]과 [그룹] 혹은 [사랍]과 [조직/기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모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 이씨는 [사람]으로서, 기업이라는 [조직/기관]이나 특정 부서[그룹]의 조직원으로 소속이 될 수 있다. FOAF 모델은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인 관계로 실제 세계에서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레지던시]라는 특수한 기관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res artist' 홈페이지나, 레지던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출한 요소들을 res 모델의 개체로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3. 유로피아나 EDM 모델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데이터 모델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의 정보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연합의 '유로피아나(Europeana)프로젝트'가 있다.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EU소속 유럽 국가들의 문화유산 정보를 한 데 모은 디지털 도서관 혹은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며, 기록관·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3,000개가 넘는 문화유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의 소장 문화유산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협력 등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보 관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EDM(Europeana Data Model)'이라고 하는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이다. EDM 모델 이전에 개발되었던 것이 ESE (European Semantic Elements)라는 모델이었으나, ESE 모델의 경우 더블린코어만을 기반으로 하여 몇몇 요소들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 만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블린코어 기반의 단순한 구조는 상호운용을 지원하였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유산정보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기관들이 정보를 대입할 경우 내용의 일부가 손실되거나 잘못 대입되는 문제점을 낳았다.[5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EDM(Europeana Data Model)모델이다. EDM은 ESE와 다르게 특정 영

51) 임태원, 앞의 글, 2014, 41쪽.

역의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각 분야의 대표 표준이나 모델을 수용하고 이들과 호환될 수 있도록 최상위 모델로 설계 되었다. 유로피아나의 수많은 데이터는 EDM모델을 통해 각 고유의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데이터와 의미적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EDM모델은 총 15개의 개체와 총 77개의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52] 이 중 본 연구의 모델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행사(Event)], [기간(TimeSpan)]개체와 [일어나다(happenedAt)속성 총 3가지이다. [행사]개체는 레지던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활동, 행사 등을을 의미하며 전시회나 워크샵, 교육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모델 설계 시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제2절 데이터 모델 설계

1. 모델 주요 개체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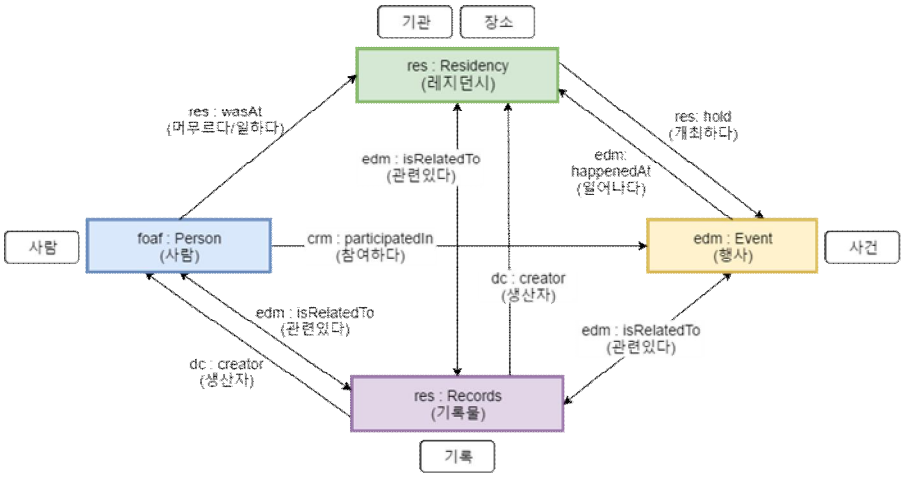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레지던시 간 정보 연계를 위한 '레지던시 기록정보 모델(이하 res모델)'을 제안한다. 모델 설계 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참고 메타데이터와 기술 요소, 데이터 모델의 요소들 중 추출된 요소를 개체나 속성으로 재사용 하였으며, 부족한 요소는 새롭게 추가하여 'res : ooo'로 표현하였다.

res 모델은 레지던시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는 중요 맥락 정보인 '기관, '사람', 행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 관

52) Europena, 『Europeana Data Model Primer』, Europeana, 2013; Europeana, 『Definition of the Europeana Data Model』, Europeana, v5.2.7, 2016.

계성을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res모델의 4가지 핵심 개체인 [레지던시(residency)], [사람(person)], [기록물(rescords)], [행사(event)]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된다.

<그림 2> res모델 핵심 개체 관계 모형



본 모델의 핵심이 되는 '레지던시'는 외부의 참고 모델에서 해당하는 개체가 없었으므로 새롭게 설정 하였다. 레지던시는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레지던시는 운영 시스템을 갖는 '기관'인 동시에 사건이나 행사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res모델에서는 [레지던시]개체를 FOAF 모델의 [조직]개체의 하위 개체로 설정함과 동시에 EDM 모델의 [장소]개체의 하위 개체로 연결하였다.

두 번째로 레지던시의 핵심 정보로 [사람]개체를 선정하였다. 입주 작가, 레지던시 직원(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미술 관련 전문가(비평가, 평론가, 미술관 학예사)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이들은 레지던시에서 머물

거나 일을 하며[머무르다/일하다(was at)],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참여하다(participatedIn)]. 이 중 입주 작가와 레지던시 직원은 레지던시의 핵심 구성원이자 기록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개체의 하위 개체로 따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사람 정보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res모델의 [사람]개체는 FOAF모델의 [사람]개체를 재사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사용한 다른 영역의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행사]개체를 설정 하였다. 행사는 기관인 레지던시가 개최하고[개최하다(hold)], 사람들이 참여하며[참여하다(participatedIn)], 장소인 레지던시에서 일어난다[일어나다(happenedAt)]. [행사]개체는 유로피아나 EDM 모델의 [Event]개체를 재사용하였다. 하지만 EDM에서의 Event정의를 살펴보면 '규모를 불문한 문화적, 사회적, 물리적 체계의 변화 혹은 시간과 공간 범위 내에서의 일관된 현상의 집합이나 문화적 징후'라는 다소 추상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res모델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의 Event로서 일정 시기에 특정 공간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전시나 워크샵, 세미나, 교육 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다만 행사 이외에 레지던시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싶은 경우 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재정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개체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록물은 미술 기록의 일종인 미술 레지던시 기록으로서 맥락 정보와 분리된 물리적 실체를 갖는 기록이다. 더블린 코어나 EAD, 미술관 기록요소 목록 등 기록물에 대해 기술하기 위한 모델이 있지만, 이를 개체로서 따로 정의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res모델에서 새롭게 설정 하였다.

[기록물]개체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개체 [레지던시], [사람], [행사]와 모두 관련이 있다[관련있다(isRelatedTo)]. 예를 들어 2009년에 작가 김

씨가 입주 지원을 위해 창동 레지던시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기록물]는 작가 김씨[사람-입주작가] 또는 창동 레지던시[레지던시]와 관련이 있고, 2013년에 작성 된《창동 삼거리》전의 전시 계획서[기록물]는 전시[행사의 하위 개체인 전시] 또는 전시에 참여했던 입주 작가들[사람-입주작가], 전시를 기획하여 해당 계획서를 작성한 레지던시 직원[사람-레지던시 직원]과 관련이 있다. 또한 [기록물]은 생산자가 있으며[생산자(creator)], 생산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 차원인 [레지던시]일 수도 있다. 이상 정의된 4개의 개체들에 대한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res 모델 핵심 개체(entity) 요소

개체명 : 레지던시(Residency)	
정의	일정한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갖으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자 장소. 예) 창동 레지던시
다른 개체와의 계층 관계	FOAF:'행위자'의 하위 개체인 '조직'의 하위 개체, EDM:'장소'의 하위 개체
참고/출처 모델	res모델에서 자체 설정

개체명 : 기록물(Rcords)	
정의	레지던시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생상된 모든 종류의 기록
다른 개체와의 계층 관계	없음
참고/출처 모델	EDM

개체명 : 사람(Person)	
정의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다른 개체와의 계층 관계	FOAF: '행위자'의 하위 개체

참고/출처 모델	FOAF

개체명 : 행사(Event)	
정의	규모를 불문한 문화적, 사회적, 물리적 체계의 변화 혹은 시간과 공간 범위 내에서의 일관된 현상의 집합이나 문화적 징후 (EDM 정의에 의해) 혹은 일정 시기에 특정 공간에서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로 시행된 어떤 일
다른 개체와의 계층 관계	[전시(Exhibition)] [워크샵(Workshop)]등의 상위 개체일 수 있으나 이는 레지던시 기관 별 행상에 따라 다르다.
참고/출처 모델	EDM

2. 확장된 모델

res모델은 앞서 소개한 핵심 개체들을 중심으로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으며 확장된다. 확장된 관계를 도식화 화면 <그림 3>과 같다. 확장된 모델은 위에서 설명한 4 개 개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설정한 개체들과 속성들로 구성된다. 관계 모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핵심 개체를 분리된 정보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개체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개체 및 속성(properties)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레지던시 정보 영역

[레지던시]개체는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기관'이자 '장소'이다.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경기 창작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 된다.

[레지던시]개체를 설명하는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 'res artis'사이트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레지던시]개체에 대한 속성들을 모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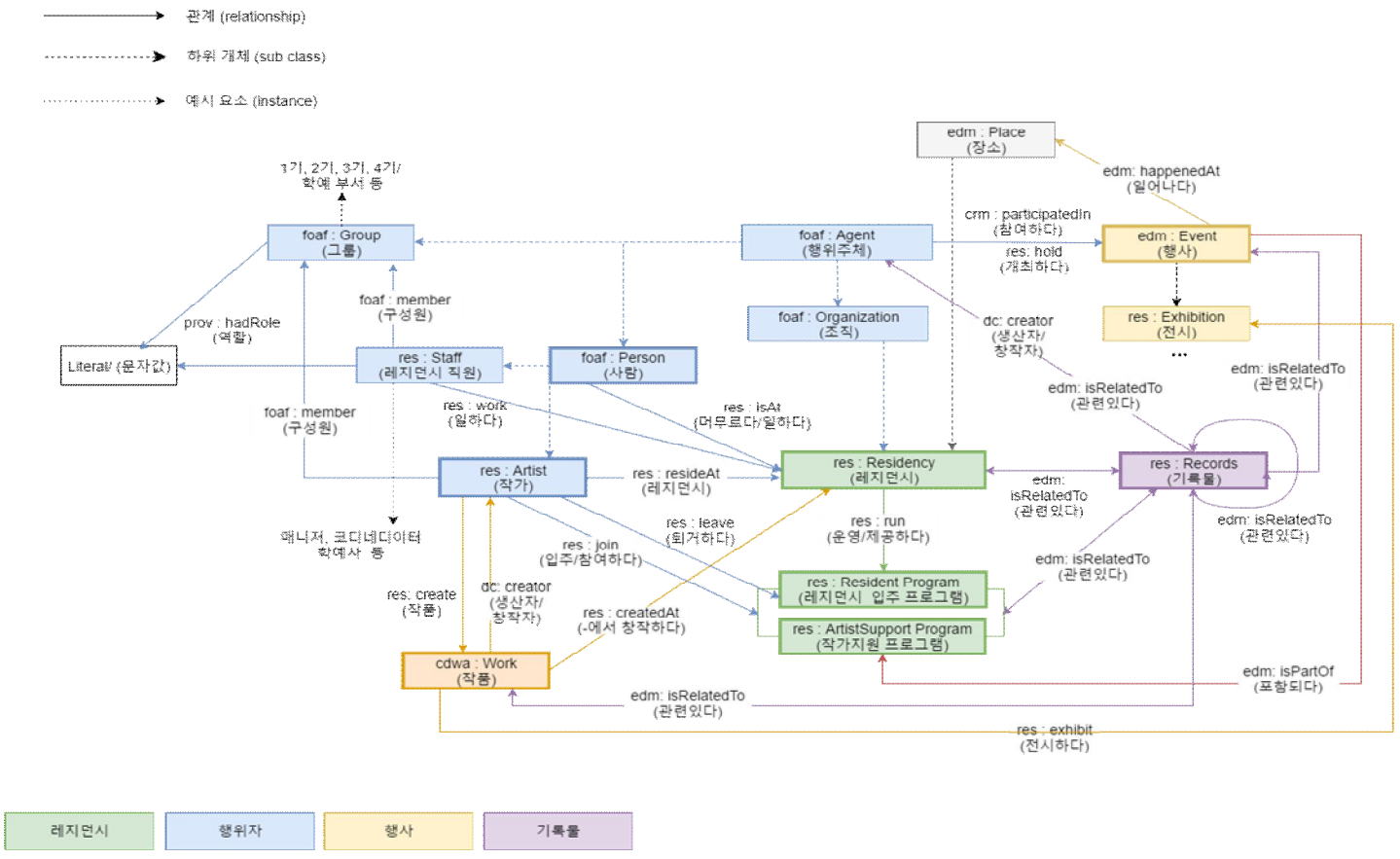
<표 17> [레지던시]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속성명	내용 및 출처/참고 모델
기관고유식별코드 (res:residencyID)	EAC 요소 참고/자체 설정
기관명 (res:residencyName)	FOAF 모델 [이름(name)]의 하위 요소/ EAC 요소 참고/ res artis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설립년도 (res:foundedIn)	EAC 요소 참고/ res artis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현
폐관년도 (res:ClosedIn)	EAC 요소 참고/ res artis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현
연혁 (res:history)	EAC 요소 참고/ 자체 설정 / 문자 값
위치 (geo:location)	geo names 요소 재사용, geo names와 연결
유형 (dc:type)	레지던시 운영 유형 / DC 요소 재사용 예) 국가기관 소속 레지던시, 미술관·갤러리 소속 레지던시, 재단 소속 레지던시, 예술가 운영 레지던시 등 / resartis 메타데이터 참고
분야 (res:genre)	res artis [disciplines and media] 참고 예) 시각예술, 조각, 설치, 공예, 섬유예술, 판화, 사진, 미디어 아트, 건축 등
요약 설명 (dc:description)	EAC 요소 참고/ DC 요소 재사용/ 문자 값
홈페이지/사이트 (foaf:hompage)	FOAF 요소 재사용/ 문자 값

전화번호 (foaf:phone)	FOAF 요소 재사용

먼저 레지던시 간 정보 연계를 위해 [기관고유식별기호]를 각 레지던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관고유식별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레지던시는 없으나, 실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이를 부여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레지던시의 [설립년도]와 [폐관년도]속성은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현하며, [연혁]속성은 문자 값으로 입력한다. [위치]속성은 geo names의 요소를 재사용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geo names의 지역 데이터와 연계 가능하다. [유형]속성은 더블린 코어(DC)의 속성을 재사용 하였으며, res artis에서 사용하는 유형 분류 내용을 참고하였다. res artis에 의하면 기관의 유형은 국가기관 소속 레지던시, 미술관 소속 레지던시, 갤러리 소속 레지던시, 대학 소속 레지던시, 독립 재단 운영 레지던시, 예술가 운영 레지던시 등으로 분류 되는데 이는 국내 레지던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분야]속성은 레지던시에서 다루는 예술 분야를 의미하며, res artis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면 시각예술·조각·공예·섬유예술·판화·사진·공연 예술·음악·문학·뉴미디어 아트·애니메이션·건축·미술 이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res모델은 '미술 레지던시'를 대상으로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위의 예시 중에서 미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는 제외하였다. 다만 최근 현대미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타 분야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예시를 추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에 대한 [요약설명] 속성은 나머지 속성들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며 문자 값으로 입력 한다. [홈페이지]와 [전화번호]속성은 FOAF 모델의 속성을 재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 다른 정보원과 연결 가능하다.

<그림 3> res모델 핵심 개체를 중심으로 확장된 모델



이상 [레지던시]개체를 설명하기 위한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레지던시는 이렇게 자체 정보를 갖는 것 외에, 다른 개체 정보들과의 관계도 갖는다. 기본적으로 [레지던시]에는 [사람]이 머무르며, 이곳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레지던시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정보 개체로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과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레지던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작가들의 입주프로그램과 함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4> [레지던시]와 [프로그램], [작가], [행사] 개체의 관계 모형

작가들은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기간에 레지던시에 입주하고 퇴거한다[입주/참여하다(joined)][퇴거하다(leaved)].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표 18>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속성명	내용 및 출처/참고 모델
프로그램명 (res:programTitle)	res artis 메타데이터 요소 및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조/ 자체 설정 예시) 장기입주 프로그램, 아시아퍼시픽 장학지원 프로그램, 북유럽 수교 20주년 교환 프로그램 등

유형 (dc:type)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 유형/ DC 요소 재사용 예시) 장기입주, 단기 입주, 교환 입주 등
기간 (edm:TimeSpan)	프로그램 입주기간 / EDM 요소 재사용 / 예시) 2015.03~2016.02, 1년, 6개월 등
입주 인원 (res:theNumberOfPeople)	res artis 메타데이터 참고 / 자체 설정
요약 설명 (dc:description)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설명/ DC 요소 재사용/ 문자 값 입력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개체의 속성에는 [유형]과 [프로그램명]이 있다. 국내 레지던시의 입주 프로그램 유형은 일반 입주, 장기 입주, 단기 입주, 교환 입주, 프로젝트 입주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명도 기관 마다 다르다. 창동 레지던시의 경우 장기 입주를[유형] 장기 입주 프로그램[프로그램명]으로, 교환 입주를[유형] 아시아퍼시픽 장학지원 프로그램, 북유럽 수교 20주년 프로그램 등으로[프로그램명] 명칭 한다. 입주 프로그램은 [기간]이 한정 되어 있으며, 장기 입주의 경우 1-2년, 단기 입주의 경우 3-6개월 등으로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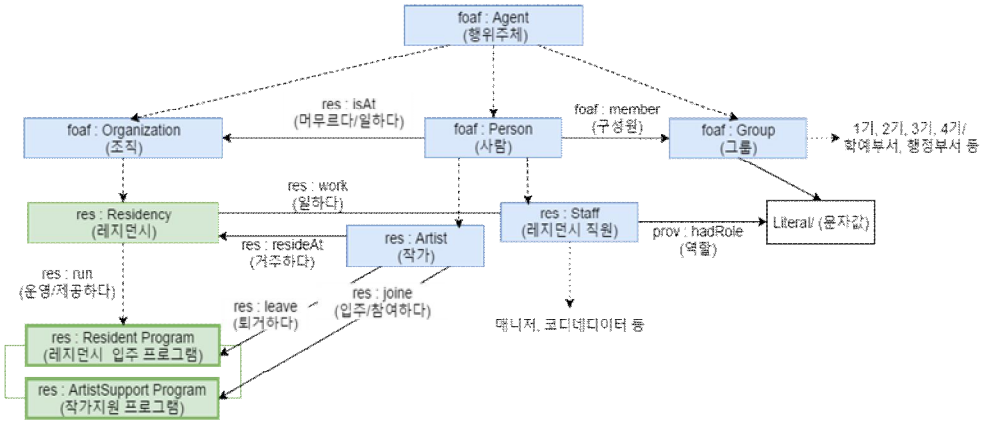
레지던시 입주 프로그램 외에 레지던시에서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경력 향상을 위해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이를 개체로 설정하였다. 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전시회나 워크샵, 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기관 마다 다양하다. 이는 이후 행사 정보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람 정보 영역

레지던시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입주 작가나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레지던시의 존속은 무의미하다. 사람 정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포괄하면서 더 넓은 의미를 갖는 [행위주체]개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위주체]는 FOAF 모델의 개체를 재사용 한 것으로 하위 개체로 크게 세 가지 [조직], [그룹], [사람]을 갖는다. 이들 개체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레지던시에는 입주 작가와 레지던시 직원이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res모델에서는 [작가]와 [직원]을 [사람]의 하위 개체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관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한 경우 사람의 하위 개체를 새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레지던시에서 학예사의 역할이 중요한 기관일 경우 [학예사]개체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 레지던시 사람 정보 영역 개체의 관계 모형



레지던시 직원과 작가는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구성원]. 레지던시

의 규모가 크거나 모 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면 레지던시 직원[레지던시 직원]은 특정 부서[그룹]에 소속되어[구성원] 일을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는 창동 레지더시의 경우 레지던시의 코디네이터 박씨(레지던시 직원)는 레지던시의 자체 직원이 아닌 국립현대미술관 학예1실의[그룹]의 소속 직원[구성원]으로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레지던시 직원과 그가 소속된 그룹은 특정 업무 기능을 갖는다.[역할(hadRole)]. 앞서 레지던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레지던시에서의 공통적인 업무 기능을 '입주 작가관리', '입주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타 행사 운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별 부서나 직원의 세부 업무 구분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보 표현을 유연하게하기 위해 [역할]에 대한 내용은 문자 값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작가의 경우에는 부서에 소속되는 경우보다는 레지던시의 운영 시스템에 의해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동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 김씨[작가]는 특정 전시의 프로젝트 그룹에 소속되어 전시할 수 있다.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 창동·고양 레지던시와 난지 창작스튜디오에서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참고하였다. 설정된 속성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작가]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속성명	내용 및 출처/참고 모델
작가고유식별코드 (res: ArtistID)	자체 설정
성명 (foaf : name)	FOAF 모델 [name] 속성 재사용
국적 (res:nationality)	외국 작가 국적 / 자체 설정

출생년도 (res: birth)	뮤움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현
작고년도 (res: death)	뮤움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현
분야 (res: ganre)	뮤움 메타데이터 참고 ex) 시각예술, 조각, 설치, 공예, 판화, 사진, 미디어 아트, 건축 등
주제 (dc: subject)	주요 관심 주제 혹은 작품 주제/ 문자 값
학력 (res: education)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 문자 값
개인전 (res: soloExhibition)	개인전 이력 / 문자 값으로 입력 혹은 [res: Solo Exhibition]개체와 연결/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그룹전 (res: groupExhibition)	참여했던 그룹전 이력/ 문자 값 입력 혹은 [res: Group Exhibition]개체와 연결/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레지던시 (res: residency)	입주한 레지던시, [레지던시]개체와 연결/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프로젝트 (res: project)	참여했던 프로젝트 이력/ 문자 값 입력 혹은 [res: Project]개체와 연결/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수상 (res: award)	수상 및 각종 기금 수혜 이력/ 문자 값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작품 (res : create)	대표 작품, [작품]개체와 연결 뮤움 메타데이터, 창동 레지던시, 난지 창작 스튜디오 메타데이터 참고/ 자체 설정
요약 설명 (dc: description)	작가에 대한 소개 및 설명/ DC 요소 재사용 / 문자 값
홈페이지/사이트 (foaf: hompage)	FOAF 요소 재사용/ 문자 값

여기에서 다루는 작가 정보는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들에 대한 정보이다. 기관 별로 입주 작가가 아닌 외부 작가들에 대한 정보도 관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입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작가]개체는 [레지던시]개체와 마찬가지로 고유식별코드를 갖는다. 실제로 작가식별코드 역시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레지던시에 입주하는 작가들 중에는 일반 입주나 교환 입주 등을 통해 들어온 외국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 작가는 [출생년도]와 [작고년도] 정보를 갖는다. 보통 작가에 대한 평가와 평론이 이루어질 때 출생년도와 주요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맥락이 고려되므로 중요하다. [분야]와 작품의 주요 [주제] 역시 작가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다음으로 작가의 이력에 관련된 속성으로는 [학력]과 [개인전], [단체전]. [레지던시], [프로젝트], [수상] 정보가 있으며, 모든 속성들은 문자 값으로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전]과 [단체전] 속성의 경우 res모델 [전시]개체의 하위 개체인 [개인전]과 [단체전]개체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추후 작가가 참여한 전시를 단순히 문자 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한 정보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레지던시] 속성도 마찬가지여서 res모델의 [레지던시]개체와 연결을 할 경우 작가

가 입주했던 레지던시의 다른 정보들과 연결이 가능해 진다.

작가들은 레지던시 입주 기간 동안 창작 공간을 제공 받고 그 곳에서 작품을 생산 한다[작품(create)]. 레지던시는 미술관과 달리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관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가가 레지던시에 머무는 동안 어떤 작품들을 창작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작가 이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작품]속성은 res모델의 [작품]개체로 연결되어야 하며, [작품]개체를 설명하는 속성들을 통해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속성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정보는 [요약 설명]속성에 문자 값으로 입력한다. 여기에는 작가 평론·비평 글이나 작가노트 등이 쓰일 수 있다.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 속성을 통해 연결 가능하다.

3) 행사 정보 영역

레지던시에서는 사람들의 만남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레지던시의 주관으로[hold]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res모델에서 [Event]개체는 EDM 모델의 [Event]개체를 재사용하였는데, EDM 모델에서 말하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로 정의를 축소하였다. 이는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관 별로 행사 이외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의를 확대할 수도 있다.

res모델에서는 [행사]의 하위 개체로 [전시]개체 만을 설정하였다. 전시는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이자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서,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 기타 행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 레지던시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샵, 교육 행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의 행사들이 진행되지만 그 종류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res모델에서 일일이 개체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필요한 경우 행사의 하위 개체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사]개체를 설명하기 위한 속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행사] 개체 설명을 위한 속성

속성명	내용 및 출처/참고 모델
행사고유식별코드 (res:evnetID)	자체 설정
제목 (dc:title)	DC의 [title]속성 재사용
일어나다 (edm:happenedAt)	[장소]개체와 연결/ EDM [happenedAt] 재사용
기간 (edm:TimeSpan)	행사 기간/ EDM [TimeSpan]재사용/ 예시) 2016.10.02.~2017.01.02
참여자 (res:paricipant)	행사 참여자/ [사람]개체와 연결
기획자 (res:curator)	행사 기획자 / [사람]개체와 연결
주최/주관/후원 (res:support)	행사 주최, 주관, 후원 사항/ 자체 설정

행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행사고유식별코드]속성을 통해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행사는 [제목]이 있으며,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happenedAt].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장소]의 하위 개체인 [레지던시]일 수도 있고, 레지던시 이외의 장소일 수도 있다. 행사는 일정 [기간]동안 진행되며 이 속성에 대한 값은 숫자로 입력 한다. 행사는 [참여

자]속성을 가지며 참여자 정보 확장을 위해 [사람]개체와 연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행사]의 하위 개체인 [전시]의 경우 어떤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작가]개체와 연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참여 작가 외에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원할 경우 [기획자]속성을 통해 [사람]으로 연결하면 된다.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는[주최/주관/후원]속성에서 문자 값으로 입력한다.

4) 기록물 정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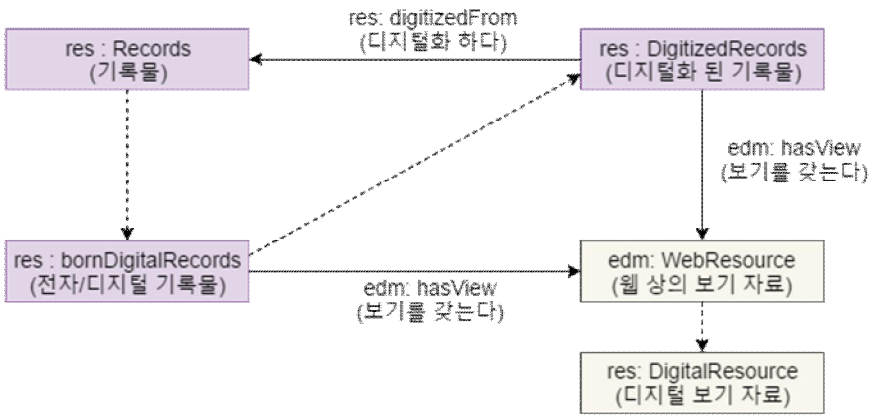
res모델의 네 가지의 핵심 정보 영역 중 마지막 영역은 기록물에 대한 정보 영역이다. 맥락 정보와 분리된 물리적 실체를 갖는 [기록물]은 다시 [전자/디지털 기록물]과 [디지털화 된 기록물]로 분리된다.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록물들의 상당수가 컴퓨터로 생산되어 전자·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레지던시에서 실물 기록물뿐 아니라 전자·디지털 기록물 대한 관리와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전자/디지털 기록물]개체는 전자·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말하며 [기록물]개체의 하위 개체이다. 최근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하여 시스템 내에서 관리·보관·이관 한다. 하지만 레지던시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으로 생산되어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res모델의 [전자/디지털 기록물]개체는 이러한 종류의 기록물들을 지칭한다. 특별히 공공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시의 경우 행정 문서류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타 업무시스템을 통해 보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록들 중 기관

간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므로 본 모델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후 레지던시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전자/디지털 기록물]개체가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기록물 개체의 구성 및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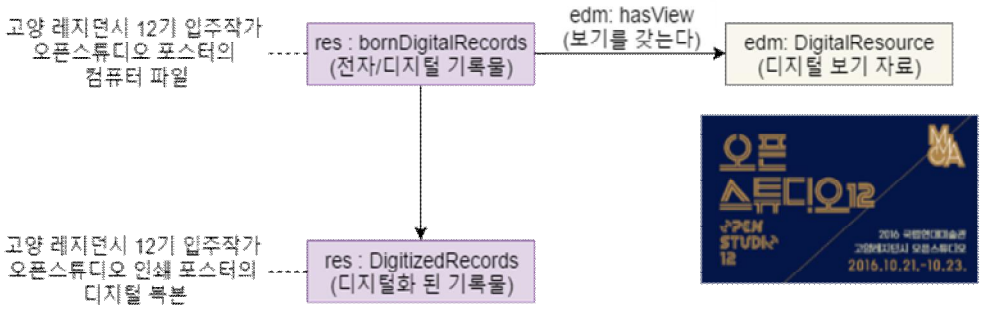


[디지털화 된 기록물]개체는 실물 기록물 중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디지털화 되다(digitized)]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기록물을 의미한다. 국내 미술 레지던시는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컴퓨터로 생산된 기록물이 대부분이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에 생산된 기록물은 종이 기록과 같은 실물 기록물을 많이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물은 실물 자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실물 기록물은 반드시 기관을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된 기록은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기관 간 공유도 가능하다.

[전자/디지털 기록물]과 [디지털화 된 기록물]은 모두 [디지털 보기 자료]를 갖는다 [hasView]. 디지털 보기 자료는 썸네일과 같은 형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양 레지던시의 《12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전시

포스터가 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두 가지 형태의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다면, 이 두 가지 기록물 모두 디지털 보기자료를 가질 수 있다.

<그림 7> 디지털 보기 자료



한편 [기록물]과 [전자/디지털 기록물], [디지털화 된 기록물]에 상관없이 이들은 속성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물에 대한 설명은 res모델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속성 없이 이지은, 김지현(2015)의 논문에서 정리한 미술관 기록물의 기술요소를 통해 대부분 설명 가능하였다. 그러나 미술관 기록물의 기술요소는 기록물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에 연계 되었을 경우 불필요한 정보들, 가령 '정리 체계'나 '보존 주기' 등과 같은 기록물의 관리나 보존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res모델에서 기록물 설명을 위한 속성을 설정할 때는 미술 기록물 기술요소 중 필요한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행정 연혁', '개인 이력' 등 맥락 정보에 대한 요소들은 앞서 다른 정보 영역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들이므로 제외하였다.

미술관 기술요소는 전산화 모델이 아니므로, 해당 요소에 부합하는 다른 모델의 속성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주로 자료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DC 모델과 기록물 검색도구의 암호화된 표준인 EAD 표준 메타데이

터의 요소를 재사용하였다.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에서 '제목'요소가 있었다면, DC 모델에서 이에 부합하는 '제목(title)' 속성을 가져오는 식이다. 선별된 속성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기록물]개체 정보 설명을 위한 속성

속성명	내용 및 출처/참고 모델
기록물고유식별코드 (res:recordID)	자체 설정
제목 (dc:title)	기록물 제목 , DC 속성 재사용
생산연도 (dc:created)	기록물 생산연도 , DC에서 생산연도를 표현하는 [created]속성 재사용
기록 계층 (res:class)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문자 값 입력, 자체 설정
규모 (dc:extent)	컬렉션, 시리즈 등의 규모, DC 속성 재사용 ex) 15박스, 100m
수량 (res:quantity)	자체 설정, ex) 리플릿 1장 4쪽
유형 (dc:type)	DC 모델 속성 재사용, ex) 전시 인쇄물(포스터,리플릿), 광디스크(CD 등)
생산자 (dc:creator)	DC 모델 속성 재활용 ex) 입주작가, 코디네이터, 레지던시
생산 기관 (foaf:organization)	기록물을 작성한 기관, foaf 개체 재활용 ex) 레지던시, 미술관 등
원본의 존재와 위치 (res:originalsLocation)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자체 설정
사본의 존재와 위치 (res:alternativesLocation)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시관, 자체 설정

접근 조건(ead:accessRestict)	ead 표준 요소 재사용
이용 조건(ead:userRestrict)	ead 표준 요소 재사용
접근조건의 법적 근거 (ead:legalsatus)	공공누리, Creative Commons 저작권 표시 사용 /EAD 메타데이터 재사용
언어(dc:language)	DC 모델 속성 재사용, 자료 내용에 포함된 언어 ex) ISO 639에 의거, 영어는 'en'혹은 'eng'
요약 설명 (dc:description)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각 계층에 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설명 / DC 속성 재사용
전자·디지털 기록 res:bornDigitalRecords	[기록물]의 하위 개체, 생산 시 전자적으로 혹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 res모델 자체 설정
디지털화된 기록 res:digitisedRecords)	[전자·디지털 기록]의 하위요소로, 본래는 디지털 형태가 아니었으나, 이후 디지털화 처리된 기록물, res 모델 자체 설정.
관련있다 (edm:isRelatedTo)	[기록물]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련 있는' 경우, EDM 모델 속성 재사용.

[기록물] 역시 다른 정보 영역과 마찬가지로 고유 식별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록계층]은 '기록' 에 대해 다루는 모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서지 정보나 문화 예술 분야와 관련된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의 계층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기록물만의 특징이 발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블린 코어 모델에서도 낱개의 자료에 대해 기술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전체 기록물 구조와 기록들 간의 계층

적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다. 미술관 기록 기술요소나 ISAAR(G)와 같은 기록물 기술 표준 등에서 기록물의 '계층'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나, 외부 데이터 모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개체가 없었으므로 본 모델에서 새롭게 설정한다. 저작권이나 이용 권한에 관련해서 더블린 코어 모델에서는 [저작권(right)]라는 속성 하나로 표현되었으나, 기록물 검색 도구 표준이 EAD에서는 [접근 조건], [이용 조건], [접극 조건의 법적 근거] 등 더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재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을 통해 설계한 데이터 모델의 확장된 모델인 <그림 4>를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모델링 도구인 프로테제(protégé)에서 설계한 후 RDF언어로 출력하면 다음과 같다.

```
<?xml version="1.0"?>
<rdf:RDF xmlns="http://bike.snu.ac.kr/residency#"
xml:base="http://bike.snu.ac.kr/residency"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owl="http://www.w3.org/2002/07/owl#"
xmlns:xml="http://www.w3.org/XML/1998/namespace"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owl:Ontology rdf:about="http://bike.snu.ac.kr/residency"/>

<!-- http://bike.snu.ac.kr/residency#Artist -->
<owl:Class rdf:about="http://bike.snu.ac.kr/residency#Artist">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Person"/>
</owl:Class>

<!-- http://bike.snu.ac.kr/residency#Exhibition -->
```

<owl:Class rdf:about="http://bike.snu.ac.kr/residency#Exhibition">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www.europeana.eu/schemas/edm/Event"/>
</owl:Class>

<!-- http://bike.snu.ac.kr/residency#Residency -->
<owl:Class rdf:about="http://bike.snu.ac.kr/residency#Residency">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www.europeana.eu/schemas/edm/Place"/>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Organization"/>
</owl:Class>

<!-- http://bike.snu.ac.kr/residency#Staff -->

<owl:Class rdf:about="http://bike.snu.ac.kr/residency#Staff">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Person"/>
</owl:Class>

<!-- http://www.europeana.eu/schemas/edm/Event -->
<owl:Class rdf:about="http://www.europeana.eu/schemas/edm/Event"/>

<!-- http://www.europeana.eu/schemas/edm/Place -->
<owl:Class rdf:about="http://www.europeana.eu/schemas/edm/Place"/>

<!-- http://xmlns.com/foaf/0.1/Agent -->
<owl:Class rdf:about="http://xmlns.com/foaf/0.1/Agent"/>

<!-- http://xmlns.com/foaf/0.1/Group -->
<owl:Class rdf:about="http://xmlns.com/foaf/0.1/Group">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Agent"/>
</owl:Class>

<!-- http://xmlns.com/foaf/0.1/Organization -->
<owl:Class rdf:about="http://xmlns.com/foaf/0.1/Organization">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Agent"/>
</owl:Class>

<!-- http://xmlns.com/foaf/0.1/Person -->

<owl:Class rdf:about="http://xmlns.com/foaf/0.1/Person">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xmlns.com/foaf/0.1/Agent"/>
</owl:Class>
</rdf:RDF>

<!-- Generated by the OWL API (version 4.2.1.20160306-0033)
https://github.com/owlcs/owlapi -->

제5장 결론

90년대 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미술 레지던시는 젊고 유망한 동시대 미술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일종의 인큐베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곳에 머물렀던 작가들의 정보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현재의 활용 가치뿐 아니라 이후 한국 동시대미술사 연구 시에 활용될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 미술 레지던시의 짧은 역사 속에서 레지던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레지던시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치중된 나머지, 레지던시 기록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레지던시 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레지던시 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 과정으로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미술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둘째 문헌 분석의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실제 레지던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문헌조사와 레지던시 기관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데이터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추출하고, 데이터 모델들로부터는 재사용 가능한 개체와 속성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모델와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모델 설계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모델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 간의 논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는 레지던시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데이터 모델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 이후 레지던시 기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양건열 외 5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김연진 외 4인,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Europeana, 『Europeana Data Model Primer』, 2013
- Europeana, 『Definition of the Europeana Data Model』, v5.2.7, 2016
- Europeana, 『Europeana Data Model Mapping Guidelines』, v2.3, 2016
- ISO 23081 : 2006
- KSXISO 23081-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제1부: 원칙』
- ISO 15489 : 2009

2) 단행본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3) 학술논문

- 조윤희,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제2호, 2003.
- 황진수 외,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연구과제』, 제9호, 2008
- 임진희,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 박상애, 「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 『박물관교육연구』,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4

4) 학위 논문

• 이명옥, 『한국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발전 모델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송민정, 『행정기관의 기록물 전거레코드 개발 방향』,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혜린, 김익한,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2009
• 신정이,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 안정은, 『창의적 예술 공간으로서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미술관 박물과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 임태원, 『디지털 문화유산자원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연구: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DM)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 강현덕, 『예술가의 레지던시 참여가 창조적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5) 잡지 및 월간지

• 박정원 외 5인 「이동의 거점, 레지던시가 말하다: 국내 레지던시 관

계자 대담」, 『미술세계』, 제351호, 2014.
- 박혜강(편) 「기획 특집: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3) : 대안공간-창작공간의 딜레마」, 『묘책』, 제3호, 예술공간 돈키호테, 2013.
- 류한승, 「그들은 왜 레지던스에 열광하는가?」, 『플랫폼』, 제12호, 2008.

6) 웹사이트

- Res Artis 홈페이지 http://www.resartis.org/residencies (2016.11.10.)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홈페이지 http://www2.archivists.org (2016.11.15.)
- Dubline Core 홈페이지 DC Element Set, Version 1.1,
- http://dublincore.org/documents/dcmi-terms/#elements-format, (2016.12.20.)
- FOAF Spec 『FOAF Vocabulary Specification 0.99』
- http://xmlns.com/foaf/spec/ (2016.12.10.)

Abstract

A Study on Data Model for Linking Artist-in-Residency Record Information

Kim, Minji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ield of record management, there is a need for more convenient use of records that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records.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internet environment has developed, users need to search for record information online and browse digital copies of physical materials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rchives every time to find the desired recor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collection records of various institutions can be searched at one point access and linked information can be viewed. The method of linking the recorded information scattered and stored in the organizations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record information service which is made by the institutional limit and

enables the user to provide more rich information.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information linkage is also the case in the cultural heritage area. With the efforts to utilize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e efforts to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mutual cooperation of institutions are increasing. Cultural heritages are produced in the same source, scattered in various institutions, or produced from various sources, but they are often associated with themes or semantically. Dongwon Kim Hongdo's works are hel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Gansong Museum, and the Danwon Museum of Art. In addition, a portrait of Yi Sun-sin, Gobukseon, Guizundo and Nanjoong Diaries are all cultural heritages that can be linked to the theme of 'Imjinwaaran'. Attempts to link thes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which are organically related but physically separated, are natural.

The record information of the artist-in-residency that is a kind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belonging to the art record information category also needs to be linked. In recent years, contemporary art artists often work in the artist-in-residency, which is a workspace, an alternative space, and a gateway to the art world. Looking integrated institutional record information at a time in the situation where the flow of the interorganizational is frequent among the artists is helpful to the art experts who want to study modern art history or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artists. For example, a artist Kim who moved into Changdong Residency can now think of moving into the Nanji Creative Studio,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so on. At this time, the art critic who wants to evaluate the artist needs to examine the artist's activities in the residency. If there is a link between the residency records, you can find information about the artist's activity in the residency, the works created there and the records related to them.

However, research on art residency in Korea has not been able to find a discussion for linking record informa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 record in the studies related to art residency. Most of the studies are focused on discussions on how to activate the residency or residency's program. However, as discussions about archives in the art world become active and the necessity of this is emphasized, it is time to suggest ways to manage and utilize the recorded information of the art residency.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connection of record information as one of the way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effectively utilize residency records.

Keywords : Records, Archives, Artist-in-Residency, Art Archives, Residency Archives, Linking Records Information, Data Model

Student Number : 2015-20112